# 연설문의 들머리와 마무리 구조 분석*

백미숙(성균관대)

## 1. 들머리

연설은 뉴스, 전화 대화, 편지, 독자 투고, 논평, 설교, 강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텍스트의 한 형태이다. 연설은 말할 내용을 미리 글로 쓴 다음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구어와 문어의 중간 형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 미리 글로 쓰는 준비 과정에서 보다 밀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짜임새 있는 구조를 다질 수 있다는 문어의 장점과 억양이나 제스처, 시선 접촉, 외모, 얼굴 표정 등 다양한 비언어적 수단을 동원해서 청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구어의 장점이 어우러져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지식은 비언어학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텍스트 언어학적으로 볼 때 과연 연설문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들은 특정한 상황적 자질과 의사 소통 기능적 자질 그리고 구조적 자질들에 의해서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텍스트 유형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자들마다 텍스트를 유형화하면서 제시하는 기준이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기능적 측면과 상황적 측면, 주제적 측면에서 텍스트 유형을 기술하고 분류하려는 시도가 지배적이다.

브링커 Brinker(Brinker, 1997: 13f.)에 따르면, 주제는 분명하고 자세한 의미를 가질 뿐이고, 상황은 의사소통적 접촉이 실현되는 틀을 제시해 주는데 비해, 의사소통 양식을 규정짓는 것은 텍스트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텍스트 유형 분류를 가능케 하는 기준으로 텍스트의 기능을 제시한다. 그는 텍스트 기능을 "규약에 의해서 통용되는, 다시 말해서 곧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구속력 있게 규정된 일정한 수단들을 이용하여 텍스트에 표현된 생산자의 의사소통 의도" Kommunikationsabsicht로 파악한다. 즉 텍스트 기능을 텍스트

* 본 연구는 2000년도 성균관대학교 박사 후 연수 과정 연수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생산자가 텍스트 수용자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이다. 그는 생산자가 텍스트를 수단으로 수용자에게 표출하는 의사소통 접촉 방식에 근거하여 텍스트 기능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기능에 따라 다섯 가지 텍스트 유형, 즉 제보 텍스트, 호소 텍스트, 책무 텍스트, 접촉 텍스트, 선언 텍스트로 분류한다(Brinker, 1997: 193). 연설 텍스트는 선전 광고, 논평, 법규, 신청, 주석, 설교 등과 함께 호소 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브링커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유형화에 있어 텍스트의 기능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이들을 살펴보면, 호소 텍스트는 글린쯔 Glinz의 수행 텍스트 führender Text, 그로쎄 Große의 요청 중심의 텍스트 dominant auffordernder Text, 브루워 Brewer의 설득을 위한 텍스트 text to persuade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최선경, 1999: 9f. 재인용).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이러한 명칭에 나타난 호소, 수행, 요청, 설득이란 단어가 연설문의 주요 기능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텍스트 외적 관찰 방법에 해당하는 텍스트의 기능으로 보면, 연설 텍스트는 호소-설득 텍스트에 속한다. 그러나 텍스트 외적 관찰 방법만으로는 대략적인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텍스트 내적 관찰 방법과 관련해서 텍스트 구성 성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설문의 거시 구조

귈리히 Gülich와 라이블레 Raible에 의하면, 반복, 대치, 시제 구조 등에 의한 응결적 연쇄 구조는 텍스트의 첫 번째 차원이고, 포괄적인 의의 결속을 만들어 내는 관계들은 텍스트의 두 번째 차원이다(이성만, 1995: 80f.). 거시 구조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두 번째 차원은 일정한 텍스트의 텍스트 유형다움 Textsortenhaftigkeit을 이룬다. 텍스트 전체는 의의 단위들로서 일정한 기능을 갖는 부분 텍스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 텍스트들의 종류, 순서, 연결 관계를 통해서 텍스트 유형이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거시 구조의 유형에 따라 텍스트 유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편지는 인사하기, 호감 사기, 사연 말하기, 청원하기, 마무리로 되어 있고, 판매 대화에서 주목 끌기, 관심 끌기, 구매 욕구 유발하기, 행동 수행 유도하기 등의 일정한 부분 텍스트

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설의 경우에도 일정한 구조로 되어 있다. 연설문이 몇 개의 부분 텍스트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논란은 수사학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그 역사가 깊다.[1] 적게는 3분법에서부터 많게는 7분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가장 간결한 구조인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 구성안은 작문과 같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형식인데, 연설문의 주요 배열 골격이 그대로 학교 교육으로 옮아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토마스 윌슨 Thomas Wilson은 연설문의 구조를 도입부 entrance, 서술 narration, 명제 제시 proposition, 분할 division, 확언 confirmation, 반론 confutation, 결론 conclusion으로 구성된 7단락으로 설명한다(박우수, 1995: 31 재인용).

여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4분법을 따를 것이며, 이때 양태종의 용어를 사용하여 들머리, 얼거리, 밝히기, 마무리라고 부르기로 한다. 4분법을 3분법이나 7분법과 비교하면, 들머리는 얼거리와 함께 3분법의 서론과 7분법의 도입에 해당한다. 얼거리는 7분법의 서술과 같은 개념이고, 밝히기는 3분법의 본론과 7분법의 명제 제시, 분할, 확언, 반론, 반론에 해당된다. 마무리는 결론에 해당된다. 이처럼 연설 단락의 숫자만큼이나 각 단락에 대한 명칭 또한 논란이 많은데, 이러한 논의는 여기에서 접어두기로 한다.

연설문이라는 전체 텍스트에서 각 단락들을 효과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수사학에서는 배열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배열 dispositio이란 그리스어로는 taxis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Anordnung, Struktur라고 한다. 즉 착상의 과정을 통하여 발견된 말감이나 생각들을 질서 정연하게 늘어놓는 것을 의미한다.[2] 연설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틀을 짜는 목적은 바로 청중을 더욱 즐겁게 하거나 연설에 설득력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들머리는 다룰 사안에 대해 청중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얼거리에서는 "사안의 대강"을 알리고, 밝히기에서는 사안에 대해 증명해 보이고, 마무리에서는 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명료하게 하거나 청중에게 행동 수행을 유도하는 목적을 갖는다. 고대 수사학의 교본에 따르면, 연설의 4단락에서 그

1) 고대 수사학 교본에 나타난 분류법에 대해서는 양태종(1991: 106f.) 참조.

2)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열에서 연설자의 온화한 감정 또는 기품(ethos)과 청중의 격한 감정(pathos)을 연설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본다.

필요성과 관련해서 볼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들머리이고, 그 위치와 관련해서는 들머리와 얼거리가 논란거리다.

들머리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고대 수사학 교본을 보면, 크게 우러르는 말거리, 시시한 말거리, 시간이 빠듯한 경우에는 들머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3)]

그러나 우러르는 말거리에서 재판관의 호감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들머리를 생략할 수 있다는 헤르마고라스 Hermagoras의 주장에 비해, 이미 생겨난 호감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상대방의 패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들머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들머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us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또한 시시한 말거리의 경우 재판관이 사안을 들으려 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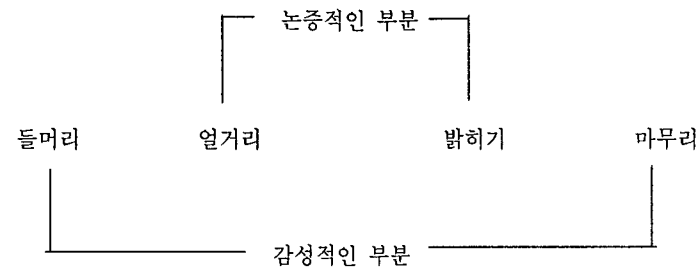
들머리와 얼거리의 위치와 관련해서, 퀸틸리안 Quintilian이나 빅토어 D. Iulius Victor는 청중이 사안을 아직 모르고 있어서 쟁점에 대해 미리 알려서 준비를 시키고자 할 때 또는 재판관들이 의심을 할 경우 뭔가가 그 사안에 방해가 되어서 재판관들이 즉시 쟁점에 대해 설명을 듣기를 원한다면 들머리보다 얼거리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Martin, 1973: 62).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대에 들머리 없이 연설을 한 연사가 없었고, 대부분 들머리 다음에 얼거리가 나오는 순서를 고수했었다고 전해진다(Martin, 1973: 62).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설문이 들머리, 얼거리, 밝히기, 마무리라는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들머리 - 얼거리 - 밝히기 - 마무리의 순서로 나온다는 고전적 견해를 따른다. 이처럼 연설 단락들의 종류, 순서, 연결 관계를 기술함으로써 연설문이라는 텍스트 유형의 특징이 설명된다.

들머리와 마무리는 연설문의 앞과 뒤에 위치하여 감정에 호소해서 감동을 주는 것과 연계되어 있고, 얼거리와 밝히기는 중간에 있으면서 사실과 이성에 호소해서 설득하기라는 측면이 강조된다(김현, 1985: 97).

---

3) 말거리 종류에 대해서는 양태종(1993b)과 Martin, J.(1974: 60-63) 참조.




일반적으로 연설이라고 할 때 다양한 종류의 연설을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연설의 목적이나 성격, 방법에 따라서 연설 종류를 가름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게 3가지의 연설 종류로, 즉 법정 연설, 정치 연설, 식장 연설로 나누었다. 이러한 구분에는 청중의 태도와 시간 그리고 장소가 기준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청중의 태도를 적극적 태도와 수동적 태도로 나눈 다음, 다시 이 태도를 시간과 장소와 관련해서 연설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청중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연설의 경우 청중의 판단이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미래에 다가올 일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이 판단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면 법정 연설로, 그리고 이 판단이 민회에서 이루어지면 정치 연설로 나뉜다. 이와는 달리 식장 연설에서는 청중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현재의 일을 두고 즐기는 태도가 나타난다(양태종, 2000: 90). 여기에서는 청중의 적극적 태도를 요하는 연설 종류에 국한함으로써 식장 연설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개의 연설 단락 중 들머리와 마무리는 공통적으로 감성적인 단락에 해당된다.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에 의하면 들머리에서 연사는 신중함, 조심스러움, 절제를 유지해야 하는 반면에, 마무리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필요가 없고, 매우 감동적인 연기를 위해 모든 방편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연설에 임해야 한다(김현, 1985: 97f.). 이런 점에서 들머리와 마무리의 내용과 구조, 형식에 따라서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고대 수사학에서 제시하는 들머리와 마무리의 원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예시 텍스트를 원칙, 요령, 수사 기법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3. 고대 수사 교본에 나타난 들머리와 마무리 원칙

연설은 약 2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수사학에서 연구되고 체계화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연설문 텍스트를 논하면서 고대 수사학에 바탕을 두지 않는 것은 콘크리트나 철근 없이 집의 뼈대만을 세우는 작업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수사학에서는 들머리를 라틴어로 captatio benevolentiae라는 불렀는데, 이 말은 청중의 호감을 얻는다는 뜻이다. 즉 들머리는 핵심이 되는 연설의 내용으로 가기 위한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청중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끝까지 듣도록 준비시키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중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들머리의 구성 요소들을 일단 고대 수사학 교본에서, 특히 아낙시메네스 Anaximenes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알렉산더에게 바치는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저자 미상의 <헤레니우스에게 바치는 수사학>, 키케로 Cicero의 <착상에 관하여>와 <수사학의 가르기에 관하여>, 퀸틸리안의 <웅변가 교육>을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하자. 이 교본들을 살펴보면, 제시된 순서와 용어에는 차이는 있지만 청자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청중의 호감을 사고, 관심을 끌고, 이해를 돕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감사기에서는 연설자 자신과 관련해서 자신의 장점이나 덕, 슬기로움, 많은 경험, 정의감 등을 뽐내지 말고 내세운다거나,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나쁜 성격이나 행동을 언급하거나, 청중과 관련해서는 청중을 칭찬해서 청중으로부터 호감을 끌어낼 수 있다.

마무리 역시 연설에서 들머리만큼 중요하다. 특히 설득을 목적으로 한 연설에서 연사는 청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위 수행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마무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무리는 연설을 구성하는 마지막 부분 텍스트로써 연설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간결하게 상기시켜서 청중에게 일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양태종에 따르면 고대 수사 교본들에 나타난 마무리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양태종, 1997: 160).

[4]

| 저자 | 아리스토텔레스 | 아낙시메네스 | 저자 미상 | 키케로 | | 퀸틸리안 |
|---|---|---|---|---|---|---|
| | | | | 초기 | 후기 | |
| 마무리 원칙 | 요약 | 요약 | 요약 | 요약 | | 요약 |
| | 호의와 악의 | 감정 자극 | 늘림 | 분노 | 분노 | 감정 자극 |
| | 늘림과 줄임 | | 동정 | 동정 | 늘림 | |
| | 감정 자극 | | | | | |

아낙시메네스와 퀸틸리안을 제외하고 마무리 원칙의 수나 명칭에서 차이가 있는데, 늘림, 동정, 분노, 호의, 악의 등은 모두 감정 자극과 관련된 것이다(양태종, 1997: 160). 따라서 마무리의 원칙을 크게 두 가지, 즉 요약과 감정 자극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감정 자극에는 분노, 노여움, 증오, 공포, 두려움, 시기, 질투, 적대감, 호의, 감사, 동정 등이 동원될 수 있다.

롤랑 바르뜨는 언어적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메시지에서 이념은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기호들 사이의 형식, 즉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다. 이것은 수사학적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예시 텍스트를 분석할 때 연설문의 내용과 연사의 발화 의도 등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단편적이나마 수사학적인 기법도 같이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대 수사학 교본에서 제시된 들머리와 마무리의 원칙들이 법정 연설과 정치 연설에서 잘 적용되는가를 알아보면서 수사적 기법을 살펴보는 것은 들머리와 마무리의 부분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대 수사학 교본이 제시하는 원칙들은 주로 법정 연설을 모범으로 해서 설명되었다는 이유와 법정 연설은 일반적으로 길다는 이유에서 여기에서는 법정 연설은 하나만 분석 대상으로 삼겠다.

4) 저자 미상은 <헤레니우스에게 바치는 수사학>의 저자를 말한다.

## 4. 법정 연설문 분석

### 4.1 법정 연설문 예시 텍스트

크리스토프 마틴 빌란트 Christoph Martin Wieland의 소설 <압데라 사람들 이야기 Geschichte der Abderaten>의 제4권에 수록된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당나귀 몰이꾼의 변호인인 폴리포누스의 연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 4.1.1 법정 연설문 예시 텍스트의 들머리

[1]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400분의 의원 여러분! [2] 진리와 빛이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우수한 점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 저는 자신의 수사학에서부터 취한 장점을 활용하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4] 부당한 짓을 한 사람은 학교 수사학에서 배운 형용법과 어법, 현란한 제스처, 미사여구로 어린아이와 어리숙한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5]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6] 저는 당나귀 그림자에 관한 이번 소송으로 압데라 공화국이 얼마나 많은 명예와 명성을 얻었는지는 조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저는 재판관에게 조잡하게 알랑거려서 매수하거나 은밀하게 위협해서 놀라게 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8] 더더구나 저는 선동적인 연설로 민중에게 소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9] 저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연설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0] 간단히 말해서, 저는 당나귀 몰이꾼인 안트락스가 옳다는 것을, 좀 더 정확하고 더 적절하게 표현해서, 안트락스가 자격없는 상대방보다는 덜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11] 제가 구태여 상기시키지 않아도 재판관님들께서 할 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12]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 저는 당나귀 몰이꾼 안트락스의 변호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야손 신전의 대리인으로 그리고 고상하고 품위있는 아가튀르수스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으로, 그 분은 현재 야손 신전의 수석 사제이자 총책임자이시고, 진정한 금빛 양털의 수호자이시며, 야손 신전의 모든 재단과 재물과 서법과 영역에 대한 최고 재판관이시며, 고귀한 야손 신전 사람 모두의 수장으로서, 저의 상대가 스승인 고르기아스로부터 배운 것을 뽐내고

있는 모든 술책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안트락스가 근본적으로 대부분 옳으니 그에게 배상해 줘야 한다는 것과 그가 옳다는 것을 눈먼 사람도 볼 수 있고, 귀먹은 사람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고 큰 소리로 입증해 주기를 야손과 그의 신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13] 그러면, 서론을 끝내고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Großmögende Vierhundertmänner! [2] Wahrheit und Licht haben das vor allen andern Dingen in der Welt voraus, daß sie keiner fremden Hülfe bedürfen, um gesehen zu werden. [3] Ich überlasse meinem Gegenpart willig alle Vorteile, die er von seinen Rednerkünsten zu ziehen vermeint hat. [4] Dem, der unrecht hat, kommt es zu, durch Figuren und Wendungen und Fechterstreiche und das ganze Gaukelspiel der Schulrhetorik Kindern und Narren einen Dunst vor die Augen zu machen. [5] Gescheite Leute lassen sich nicht dadurch blenden. [6] Ich will nicht untersuchen, wieviel Ehre und Nachruhm die Republik Abdera bei diesem Handel über einen Eselsschatten gewinnen wird. [7] Ich will die Richter weder durch grobe Schmeicherleien zu bestechen noch durch versteckte Drohungen zu schrecken suchen. [8] Noch viel weniger will ich dem Volke durch aufwiegelnde Reden das Signal zu Lärmen und Aufruhr geben. [9] Ich weiß, warum ich da bin und zu wem ich rede. [10] Kurz, ich werde mich begnügen, zu beweisen, daß der Eseltreiber Anthrax recht oder, um mich genauer und billiger auszudrücken, als von einem Sachwalter gefordert werden könnte, weniger unrecht hat als sein unbefugter Widersacher. [11] Der Richter wird alsdann schon wissen, was seines Amtes ist, ohne daß ich ihn daran zu erinnern brauche.

[12] Großmögende Herren, ich stehe hier nicht als Sachwalter des Eseltreibers Anthrax, sondern als Bevollmächtigter des Jasontempels und von wegen des erlauchten und hochwürdigen Agathyrsus, zeitigen Erzpriesters und Obervorstehers desselben, Hüters des wahren goldnen Vlieses, obersten Gerichtsherrn über alle dessen Stiftungen, Güter, Gerichte und Gebiete und Oberhaupts des hochedeln Geschlechts der Jasoniden, um im Namen Jasons und seines Tempels von euch zu begehren, daß dem Eseltreiber Anthrax Genugtuung geschehe, weil er im Grunde doch am meisten recht hat; und daß er's habe, hoffe ich, trotz allen den Kniffen, die mein Gegner von seinem Meister Gorgias gelernt zu haben sich rühmt, so klar und laut zu beweisen, daß es die Blinden sehen und die Tauben hören sollen. [13] Also, ohne weitere Vorrede, zur Sache!(Wieland, 1989: 299-300)

폴리포누스의 변론은 [1]에서 이 소송의 배심원들인 400명의 의원들을 호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호칭에 사용된 'großmögend'란 형용사는 폴리포누스의 변론뿐만 아니라 반대 변론인 피지그나투스의 변론에서도 배심원들을 호칭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호칭할 때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어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호격은 항상 1격으로서 연설의 첫머리나 중간에 청중을 불러 청중의 관심을 연사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분더리히 Wunderlich에 의하면 호격 Vokativ은 언어 상황의 일부가 형식적으로 문구화 된 것 Verbalisierung이다(김윤섭, 1989: 713).

한편 호칭은 연설에서 청중이 연사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중을 끌어들여 청중도 참여해서 함께 의사소통을 한다는 느낌을 준다. 이와 함께 연사는 말할 권리가 있고, 청중은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서 연설을 지속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호칭은 의사소통적-친교적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홍재성/권오룡 역, 1994: 190f.).

[2]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진실과 빛의 우수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보편 가치에 대해서 전달하는 서술적 화행이다. 그러나 특정 사실을 영원한 진리, 상식, 속담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은 특정 사실이 진리라는 주장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청중에게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요구된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이고 자명한 사실을 말하면, 그 일반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거의 반박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방법을 당연화 naturalization(홍재성/권오룡 역, 1994: 109f.) 또는 보편 가치 논거 Wertargument (Krieger/Hantschel, 1998: 72)라고 부른다. 이런 논거는 청중에게 빨리 영향을 미치므로 설득할 때 아주 효과적이다. 또한 연사는 "낯선 도움" fremde Hülfe이라는 표현으로 바로 다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수사학, 즉 화술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바꿔쓰기 Peraphrase로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3]에서 연사는 상대방이 진실에 의존하기보다는 화술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즉 상대방이 그럴싸한 화술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위인임을 내비추어 청중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상대방이 수사적 기교를 마음껏 활용하는 것에 개의치 않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연함을 과시한다.

[4]에서 부당한 짓을 한 사람은 'Figuren', 'Wendungen', 'Fechterstreiche', 'Gaukelspiel'과 같이 학교 수사학에서 배운 것에 의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모두 수사학의 범주에 속하는 4단어를 사용한 것은 일종의 반복법이다. 비록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수사학의 부정적인 의미가 강조된다. 부당한 사람이 수사학에 의존한다는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 청중에게 명백하게 생각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논거에 허점이 있다. 이렇게 외견상으로 명백한 것처럼 보이는 논거 plausibles Argument는 주로 청중을 조종할 목적으로 사용된다(Krieger/Hantschel, 1998: 72).

또한 상대편인 치과 의사는 수사학 교육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명성과경제적 부를 누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수사학 교육과는 거리가 먼 비천한 신분의 당나귀 몰이꾼과 대조되어, 청중에게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자연스럽게 유발한다. 동시에 연사는 재판관의 명예욕과 공명심을 자극해서 공정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을 내려 달라는 기대감을 표시한다.

[5]에서 "현명한 사람"이란 재판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환칭법 Antonomasie의 예에 해당된다. 환칭법은 고유 명사를 그 특징적인 속성으로 돌려 말하거나 보통 명사를 그 대표자의 고유 명사로 돌려 말하는 어법으로, 미학적 기능을 갖는다(Plett, 1985: 70). 여기에서 현명한 사람이란 재판관을 일컫는 표현으로, 재판관을 수사적 기교에 속아 넘어 가지 않을 "현명한" gescheit 사람이라고 치켜세워 재판관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

[6]에서 이번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으로 인해서 압데라 공화국이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었는지를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반어적 어법이다. 반어법 Ironie은 말해진 것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에서 변호인은 그 반대의 말, 즉 이 소송으로 인해 압데라 공화국이 불명예를 얻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점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를 이미 청중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일종의 변죽 울리기 Anspielung이다.

[7]과 [8]에서 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공명하고도 의로운 사람임을 내세우고 있다. 즉 자신의 의로움과 덕을 내세워 "훌륭한 사람" vir bonus으로 부각시켜서[5], 재판관의 호감을 사고 자신의 말을 신뢰하

도록 만든다. 연사가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지면 변호인이라기 보다는 거의 믿을만한 증인인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9]에서 연사는 자신이 왜 법정에 있으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은 일종의 변죽 울리기이다. 재판관이 연사의 말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들머리가 진행되어서 청중의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느껴지거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도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여기서는 변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기에 앞서 자명한 사실을 말해서 청중의 관심을 끈다.

[10]에서는 연사가 앞으로 무엇에 대해 말할 것인지를 쉽고 간결하게 예고함으로써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즉 당나귀 몰이꾼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상대방보다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변론의 목적임을 요약해서 말한다.

[11]에서 재판관이 직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일종의 변죽 울리기이다. 이러한 수사 기법에는 당나귀 몰이꾼이 적어도 상대방보다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려는 연사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길 바라는 기대감을 내비추면서, 재판관의 공명심을 자극하여 그의 호감을 사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는 상당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이 되는 문장은 'Ich stehe hier ... als Bevollmächtigter. ... um ... zu begehren, daß ... und daß ...'인데, 여기서 자신이 단순히 당나귀 몰이꾼인 안트락스의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변론이 압데라 사람들이 숭상하는 야손 신전을 섬기는 수석 사제인 아가튀르수스와 관련된 것을 말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이것은 외부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수사 기법이다. 이것을 올리비에 루불은 권위적 논거 argument d'autorite라고 부른다(홍재성/권요룡 역, 1994: 127). 정당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적 사실, 헌법, 절대자, 더 지위가 높은 사람 등의 권위에 호소한다. 연사는 자신의 변론에 외부의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논의의 여지를 없애고 자기 변론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수석 사제가 권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

5) 고대 수사학에서 "훌륭한"의 의미는 표현 기법이 뛰어남은 물론이고 인격의 뛰어남도 나타낸다. 양태종(1993a: 108) 참조.

데, 그를 가리키는 표현인 '총책임자' Obervorsteher, '진정한 금빛 양털의 수호자' Hüter des wahren goldnen Vlieses, '야손 신전의 모든 재단과, 재물, 사법, 영역에 대한 최고 재판관' oberster Gerichtsherr über alle dessen Stiftungen, Güter, Gerichte und Gebiete, '고귀한 야손 신전 사람 모두의 수장' Oberhaupt des hochedeln Geschlechts der Jasoniden이 동격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점층법으로 열거되면서 권위가 한층 더 강조된다.

또한 [12]에 쓰인 'nicht ... sondern ...'은 수사 기법으로 보면 교정법 Correctio, Verdeutlichung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화자 스스로가 부적절한 표현을 정정해서 강도가 높은 표현으로 대치하는 기법이다. 교정법은 텍스트 내적으로 보면 기본 주제의 강도를 높히면서 그 주제를 늘리고, 텍스트 외적으로 보면 청자의 감정을 단계적으로 자극시키는 기능을 갖는다(Plett, 1985: 47).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과 신전과 사제를 위해서 변론하게 되었음을 은근히 내비추고 이 소송에서 자신이 변론하는 명분이 공익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과시하면서 재판관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더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13]는 들머리를 끝내고 사안으로 넘어가겠다는 예고로써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ich komme'가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법 Ellipse은 텍스트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문장 성분들을 생략함으로써 표현의 간결함을 꾀하고 말에 친밀감이나 활력 등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구두 연설에서 많이 쓰인다(Plett, 1985: 57).

또한 [13]에서는 삽입된 'ohne weitere Vorrede'로 인해서 문장 구조가 끊겨 있는데, 삽입법 Einschub, Parenthese은 주제와 상보적이거나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주제를 가진 독립적인 통사 단위를 화자가 자의로 삽입시키는 수사 기법이다.

### 4.1.2 법정 연설문 예시 텍스트의 마무리

[1] 치과 의사가 존경받는 시재판관 필리피데스가 제시한 적절한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전문 소송인이자 저의 소중한 동료인 피지그나투스의 부추김 때문인데, 그가 이번 일을 통하여 압데라 공동체에 기여한 업적의 대가로 그의 두 귀를 자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대신 당나귀 귀를 붙이는 것이 교훈적 본보기로 삼기 위해 잘하는 일이 아닐까요? [2] 또한 존경하는 조합장 프리엠과 애국적인 정열에서 일을 부추긴 나머지 분들도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로 받아야 할 공개적인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상하신 수석 사제이신 저의 고용주께서는 400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최고 법정의 통찰력 있는 평가에 맡기셨습니다. [3] 자기 구역의 통치자인 그분은 당나귀 몰이꾼 안트락스의 평생 지배자이자 재판관으로서 이번 소송에서 입증된 안트락스의 어리석음의 대가로 곤장 스물 다섯 대를 반드시 치게 할 것입니다. [4]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슈트로티온이 무례를 범했고 나귀를 남용했으며, 이로 인해서 생긴 짐지는 동물의 시간적 손실과 건강 악화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거절한 것에 대해 당나귀 몰이꾼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의 효력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5] 그래서 고상하신 수석 사제님은 자신의 구민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에 상응한 완전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이 공정한 최고 법정에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6] 이번 일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치과 의사의 나쁜 일에 무례하고도 소란스럽게 참여한 사람들 모두는 야손 신전이 매달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전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야손의 이름으로 알려드립니다.

[1] Ob es nun nicht, zu Statuierung eines lehrreichen Beispiels, wohlgetan wäre, wenn dem Sykophanten Physignatus, meinem wertesten Kollegen - als dessen Aufhetzung es ganz allein zuzuschreiben ist, daß der Zahnbrecher den von dem ehrwürdigen Stadtrichter Philippides vorgeschlagnen billigen Vergleich nicht eingegangen -, für den Dienst, den er dem abderitischen gemeinen Wesen dadurch geleistet, die Ohren gestutzt und allenfalls, zum ewigen Andenken, ein Paar Eselsohren dafür angesetzt würden. [2] Ingleichen, was für einen öffentlichen Dank der ehrwürdige Zunftmeister Pfriem und die übrigen Herren, die durch ihren patriotischen Eifer Öl ins Feuer gegossen, für ihre Mühe verdient haben möchten, überläßt der erlauchte Erzpriester, mein Prinzipal, dem eignen einsichtsvollen Ermessen des höchsten Gerichts der Vierhundert. [3] Er seines Ortes wird, als angeborner Oberherr und Richter des Eseltreibers Anthrax, nicht ermangeln,

ihm zu wohlverdienter Belohnung seines in diesem Handel bewiesenen Unverstands unmittelbar nach geendigtem Prozeß fünfundzwanzig Prügel zuzählen zu lassen. [4] Da aber darum das Recht des mehrbesagten Eseltreibers, wegen der von dem Zahnarzte Struthion erlittnen Ungebühr, wegen des Mißbrauchs, den dieser von seinem Esel gemacht, und wegen der Weigerung einer billigen Vergütung des verursachten Zeitverlusts und Deterioration seines lastbaren Tieres Genugtuung zu fordern, nichtsdestoweniger in seiner ganzen Kraft besteht. [5] So begehret und erwartet der erlauchte Erzpriester von der Gerechtigkeit dieses hohen Gerichts, daß seinem Untertanen ohne längern Aufschub die gebührende vollständigste Entschädigung und Genugtuung verschafft werde.

[6] Euch aber soll ich im Namen Jasons ankündigen, daß alle diejenigen, die auf eine ungebührliche und aufrührische Art an der bösen Sache des Zahnbrechers Anteil genommen, so lange, bis sie dafür gebührenden Abtrag getan haben weden, von den Wohltaten, die der Tempel Jasons alle Monate den armen Bürgern zufließen läßt, ausgeschlossen sein und bleiben sollen.„(Wieland, 1982: 302-303)

[1]에서 핵심 문장인 'Ob es nun nicht ... wohlgetan wäre ..'는 주문장이 없는 종속 결정 의문문으로, 일종의 수사적 의문문 Rhetorische Frage, Interrogatio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사적 의문문은 연사가 이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내포하고 있어 사실상 청중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짓 의문문이다. 그러나 청중이 직접적으로 응답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청중은 스스로 머리 속에서 답변을 생각해 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사적 의문문은 청중을 연설에 참여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사적 의문문으로 분노나 노여움과 같은 화자의 격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적 의문문은 청중과의 의사소통을 꾀하면서 호소적 성격이 강한 수사 기법이다. 이 문장에서 연사는 이미 물음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확신하고 있으면서 반어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분노를 강조하고 있다.

"상대방 변호인의 귀를 자르고 그 대신 당나귀 귀를 갖다 붙인다"라는 표현은 과장법 Hyperbel, Übertreibung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또는 부정적인 면에서 강한 감정 상태를 최대로 나타내기 위해 대상이나 사안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혹은 작게 표현하는 어법이다. 전자를 과대법이라고 하고, 후자를 과소법

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과장법에 속한다. 때로는 과장법을 반어법과 연계하면 익살의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는 연사의 분노심과 함께 익살스러움이 나타나 있다.

이 문장에서 변호인은 치과 의사가 시 재판관인 필리피데스의 화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불손하고 거만하고 오만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청중으로 하여금 치과 의사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도록 한다. 이때 치과 의사가 화해 제의를 거절한 것이 그의 변호인인 피지그나투스의 부추김 탓이라는 말로 변호인에 대한 분노심도 함께 일도록 한다. 상대방의 거만함을 드러내는 것은 청중의 분노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가 제시한 마무리의 원칙에 속한다(양태종, 1997: 167).

[2]에서 치과의사 편에 선 조합장과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관련해서 'Dank', 'patriotisch', 'Mühe'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반어법의 수사적 기법으로 그 사람들의 행위를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변론의 배후에는 수석 사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것은 신이나 선조, 국가, 민족, 현자 등의 권위 있는 사람이나 대상을 언급함으로써 이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비추어서 청중이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에서 치과 의사가 당나귀 그림자 밑에 앉아서 쉰 댓가로 그림자 값을 요구한 당나귀 몰이꾼 안트락스에게 수석 사제가 25대의 곤장을 반드시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석 사제가 한편으로는 당나귀 몰이꾼의 어리석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이것은 당나귀 몰이꾼이 당나귀 그림자 값을 요구할 정도로 무식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청중이 당나귀 몰이꾼에게 동정을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4]에서 변호인은 'aber'를 통한 밝히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wegen'을 반복 사용하여 밝히기에서 증명하고자 했던 요점들을 간결하게 하나씩 열거한다. 즉 치과 의사가 무례를 범하고 당나귀를 남용했고, 이로 인해서 생긴 시간적 손실과 건강 악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당나귀 몰이꾼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말한다.[6]

---

6) 당나귀를 빌린 것은 그 그림자도 함께 빌린 셈이기 때문에 그림자 값을 낼 필요

[5]에서도 [2]와 [3]에서처럼 수석 사제가 다시 주어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권위 있는 사람을 내세우면서 재판관의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다. 수석 사제의 기대감은 결국 연사의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5]는 뒤에 나오는 [6]과 함께 마무리의 결언부를 구성한다.

[6]에서 변호인이 고소인인 치과 의사 편에 선 사람에게는 야손 신전이 매달 주던 은전을 주지 않겠다고 한 수석 사제의 말을 청중을 향해 전하는 입장에 있음을 화법 조동사 'sollen'의 사용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 문장에서 'Euch'는 재판을 보기 위해서 운집한 군중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재판관이 청중이 된 것과는 달리 군중이 청중으로 바뀐다. 법정 연설에서는 재판관이 일차적인 청중이라면, 상대방(고소인 또는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은 이차적인 청중이라고 할 수 있다. 연사는 이차적인 청중, 특히 방청객을 향해서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게 한다. 그러면서 이런 분노심이 일차적인 청중인 재판관에게도 전해지게 하려는 효과를 본다. 즉 이런 결과의 책임이 결국 오만 불손하고 거만한 치과 의사에게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치과 의사에게 분노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재판관에게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판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민중을 청중으로 끌어들이는 수사적 기법이다. 이것은 결국 호감사기의 간접적인 방법이다. 이와 함께 [6]에는 불리한 미래 상황을 가시화해서 위협적인 어조로 청중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결언이 담겨져 있다.

## 5. 정치 연설문 분석

정치 연설의 목적은 청중이 미래의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청중에게 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추기거나 말리는 성격을 띤다. 청중은 예를 들어 유권자를

---

가 없다고 하는 치과의사 편의 논지는 반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당나귀 몰이꾼 편에서는 "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 방향을 바꿔서 치과 의사 편의 주장을 반박한다. 양태종(2000: 133) 참조.

대상으로 하는 선거 연설, 자신의 정책과 미래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연설은 청중의 태도나 신념을 연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치 연설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고객을 상대로 제품의 장점과 특징을 설명하는 제품 소개 형태의 스피치도 결국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치 연설로 볼 수 있다.

## 5.1 정치 연설문 예시 텍스트 I

독일이 통일되기 전인 1989년 12월 17일에 당시 독일 외무부 장관이었던 한스-디트리히 겐셔 Hans-Dietrich Genscher가 동독의 도시인 할레 Halle의 마르크트 Markt 교회에서 행한 연설을 살펴보자.

### 5.1.1 정치 연설문 예시 텍스트 1의 들머리

[1] 친애하는 할레 시민 여러분, 약 60년 전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왔었던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4개의 탑이 있고, 화가인 루드비시 키르히너와 리오넬 파이닝거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교회에서 말입니다.

[3] 저는 거의 매년 아내와 여기에 왔습니다. [4]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에게, 할레 시민으로서 할레 시민에게 그리고 독일인으로서 독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5] 이 도시는 저를 만들었고,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6] 1989년 독일 의회에서 새로운 핵 단거리 미사일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국의 다른 편까지 이를 수 있는 핵 단거리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말은 순전히 개인적인 책임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연방 정부 각료들이 독일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약에 따른 책임감이 독일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 여기에 근거한 국가적 책임감에서 제 고향, 내가 태어난 도시 그리고 동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에는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이러한 책임감이 저의 정치 활동에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9]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또한 서독에 사는 우리에게 거는 여러분들의 기대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10] 여러분들이 보여준 품위와 사려 깊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평화스럽게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 선거와 권리, 정의를 옹호한 점에 대해 여러분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1] Liebe Hallenserinnen, liebe Hallenser, ich spreche zu Ihnen in dieser Kirche, die ich vor bald sechzig Jahren zum ersten Mal als Kind mit meinen Eltern besucht habe. [2] Der Kirche mit den vier Türmen, die die Maler Ludwig Kirchner und Lyonel Feininger weltbekannt gemacht haben.

[3] Ich bin mit meiner Frau zu Ihnen gekommen, wie beinahe in jedem Jahr. [4] Ich spreche zu Ihnen als Christ zu Christen, als Hallenser zu Hallensern und Deutscher zu Deutschen. [5] Diese Stadt hat mich geprägt, und sie hat mich bestimmt.

[6] Als ich am 27. April 1989 vor dem Deutschen Bundestg begründete, warum ich gegen die Entscheidung über neue atomare Kurzstreckenraketen sei, habe ich erklärt: 》Es geht um nukleare Kurzstreckensysteme, die den anderen Teil unseres Vaterlandes erreichen können. Wenn wir also zur Entscheidung darüber berufen sind, dann werden wir nicht vergessen - Ich sage das hier in meiner ganz persönlichen Verantwortung: Die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leisten den Eid, ihre Kräfte zum Wohle des deutschen Volkes zu widmen. Die Verpflichtung auf diesem Eid endet nicht an der Grenze mitten durch Deutschland.《

[7] Die damit begründete nationale Verantwortung schließt meine Heimat, schließt die Stadt, in der ich geboren bin, und schließt die Menschen, die in der DDR leben, nicht aus, nein, diese Verantwortung schließt die Menschen ein.

[8] Diese Verantwortung hat meine politische Arbeit bestimmt, und das wird weiter so sein.

[9] Heute bin ich zu Ihnen gekommen, um im Gespräch mit Ihnen von Ihren Vorstellungen zu hören, aber auch von Ihren Erwartungen an uns in der Bundesrepublik.

[10] Ich bin gekommen, um Ihnen zu danken für die Würde, die Besonnenheit und die Verantwortung, mit der Sie friedlich für Freiheit und Demokratie, für freie Wahlen, für Recht und Gerechtigkeit eintreten. (Genscher, 1991: 232-233)

[1]에서 연사는 청중을 호칭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면서, 연사가 연설을 하는 곳, 바로 마르크트 교회를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던 기억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청중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친밀감을 조성하려는 연사의 의도가 나타난다.

[2]에는 'Ich spreche zu Ihnen'이 생략되었다. 생략법은 내적 또는 외적 문맥에서 보충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을 생략하는 수사적 기법으로, 표현의 간결함을 꾀하면서 주로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또는 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설에서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Plett, 1985: 57). 또한 [2]에서는 청중들이 몇몇 화가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바로 그 교회에 앉아 있다고 부연해서 설명함으로써 청중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면서 청중들을 치켜세운다. 이것은 일종의 호감사기이다.

[3]에서 거의 매년 부인과 할레에 왔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연사는 자신과 할레와의 관계가 어릴 때 일회적인 방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될 정도로 각별하다는 점을 표명하여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1]과 [2]를 연계해서 청중의 공감대를 한층 상승시킨다. 또한 [1]에서와 마찬가지로 'Ich'로 시작됨으로써 [1]과 [3]이 서로 두운법으로 연결되어 강조 효과를 자아낸다. 뒤에서도 역시 'Ich'로 시작되는데, 이처럼 같은 단어를 반복 사용하면 최면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4]에서도 [1]에서처럼 'Ich spreche zu Ihnen'을 사용함으로써 연사는 자기 발화의 의미를 직접 설명한다. 3개의 문장 성분, 즉 'Christ', 'Hallenser', 'Deutscher'이 점층법 Klimax으로 열거 Aufzählung, Enumeration되어 있어서 청중에게 긴장감을 야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동일한 문장 성분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호소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연사와 청중이 모두 기독교인이고, 할레 시민이며, 더 나아가서는 독일인이라는 공통점을 내세워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5]에서는 같은 구조의 두 문장('... hat mich geprägt'와 '... hat mich bestimmt')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이것을 평행법 Parallelismus이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단어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일부나 문장 전체가 서로 평행하게 병치된다는 점에서 반복법과 차이가 있다. 또한 [5]에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 'prägen'과 'bestimmen'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다른 단어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가 한층 강조된다. 그리고 연사는 특히 할레라는 도시가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설명하면서 할레와 자신과의 특

별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켜 청중에게 친밀감을 갖도록 만든다.

[6]에서 연사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려고 한다. 즉 연사가 독일 의회에서 핵 단거리 로케트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이 로케트가 동독까지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것을 반대했었고, 연방 정부의 각료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에 따르는 의무가 서독 내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던 사실을 거론하여 청중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연사는 동독을 "우리 조국의 다른 한 부분" anderes Teil unseres Vaterlands으로 표현해서 비록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양쪽 다 독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줌으로써 동질감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결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대의 명분에 연사와 청중간의 일체감을 유도해 내는 수사적 기법을 올리비에 르불은 단합 ralliement이라고 한다(홍재성/권오룡 역, 1994: 107f.). 이 방법은 특히 선동을 목적으로 한 연설문에서 자주 쓰인다. 연사와 청중이 하나의 집합체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연사는 자신의 연설 내용에 대한 논의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동질감이 생기고 결속감과 유대감이 강화되면 청중은 연사의 말에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

그러면서 연사는 자신이 의회에서 핵 단거리 로케트 반대한 이유가 바로 그 로케트가 동독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자신이 의롭고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해서 청중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

[7]에서는 연사가 느끼는 책임감에서 자기의 고향, 자기가 태어난 도시, 동독인들이 제외되어 있지 않고,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해서 청중과의 친밀감을 조성한다. 수사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Heimat', 'Stadt', 'Menschen'이 점층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에서 말한 내용을 확증하기 위해서 'nein'을 사용하고, 이어서 'einschließen'이 있는 문장은 'ausschließen'이 쓰인 앞 문장과 대조가 된다. 이러한 수사적 기법을 대조법 Antithese이라고 하는데, 이 기법은 한 대상을 다른 대상과 대립시키거나 한 대상 내에서 상반되는 성질들을 대립시켜서 그 중 한 가지를 강조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 물론 이 문장에서는 'einschließen'을 강조하려는 연사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8]에는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앞 문장에서 연사가 연방 정부의 각료로서 "조국의 다른 한 부분"에 살고 있는 동독인들의 안녕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

감을 갖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음을 밝히고, 뒤 문장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나 각오, 약속을 피력함으로써 자신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부각시킨다. 이것은 청중의 호감을 사기 위한 것이다.

[9]에서 연사는 청중들의 생각과 서독인들에 대한 기대를 들으려고 할레에 왔다고 말함으로써 청중이 단순히 연사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청중 자신도 직접 대화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더욱이 "대화" Gespräch란 단어의 사용은 청중이 연사와 의사소통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서 청중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거나 혹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연사가 대신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0]에서 연사는 할레에 온 두 번째 목적이 할레 시민이 보여준 품위와 사려 깊음, 책임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데 있음을 언급한다.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할레 시민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연사는 청중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 또한 'Ich bin gekommen, um ... zu ...'구문이 [9]에서처럼 사용됨으로써 평행법에 의한 강조 효과를 준다.

겐셔는 이 연설의 들머리에서 의도적으로 같은 소리로 시작되는 낱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두운법 Alliteration과 함께 같은 구문을 평행하게 배열하는 평행법을 자주 사용해서 긴장감을 유발하고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 5.1.2 정치 연설문 예시 텍스트 1의 마무리

[1] 친애하는 할레 시민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우리가 청소년기에 경험한 것이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로 정치에 투신했습니다. [2] 독일과 유럽에서의 분단이 무너지고, 동서에 있는 독일인이 자유롭게 만나고, 미래와 통일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의지로 정치에 투신했습니다.

[3] 이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허락되고, 지금 독일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4] 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제가 어디 출신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듯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 즉 새 출발하는 이곳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잊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5] 이 길이, 확신하건데, 우리 모두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1] Liebe Hallenserinnen, liebe Hallenser,
als ich mein Leben vor mehr als dreißig Jahren ganz der Politik widmete, da

habe ich das mit dem Willen getan, daß sich niemals wiederholen möge, was wir in unserer Jugend erlebt haben. [2] Ich habe es mit dem Willen getan, daß das Trennende in Deutschland und Europa fällt, daß die Deutschen in West und Ost sich in Freiheit begegnen, und daß sie in Freiheit gemeinsam über ihre Zukunft und auch über ihre Einheit sprechen können.

[3] Ich bin dankbar dafür, daß es mir vergönnt ist, daran mitzuwirken, und daß ich erleben darf, was jetzt in Deutschland und Europa geschieht. [4] Ihnen versichere ich: Wie in der Vergangenheit werde ich auch in Zukunft nicht vergessen, woher ich komme und welche Verantwortung ich trage für die Menschen, die hier leben, die einen neuen Anfang machen, auf die wir zugehen wie sie auf uns.

[5] Dieser Weg, das ist meine feste Überzeugung, wird uns zusammenführen.(Genscher, 1991: 238)

[1]에서 연사는 청중을 호칭하여 관심을 끌면서, 자신이 이 연설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의 요점을 설명한다. [1]에서 요점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이 평행법으로 [2]에서도 이어지는데('... da habe ich das mit dem Willen getan, daß .../Ich habe es mit dem Willlen getan, daß ...'), 이때 단순히 요점들을 열거하면 단조로워서 청중이 싫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사 자신이 30년 전 정치에 처음 몸담았을 때 품었던 결의와 빗대어 요점을 말함으로써 표현 면에서 변화를 준다. 이와 같이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면 청중이 쉽게 기억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마무리 방법이다. [1]과 [2]를 통해서 나타난 4가지 요점이 모두 부문장 'daß ...'로 연결됨으로서 반복법에 의한 강조 효과도 있다. 이러한 주제 요약에는 정치가인 연사 자신의 결연한 의지가 함께 부각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연사의 말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나아가서 청중의 호감사기로 이어진다.

[3]으로 연사는 청중에게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지금 독일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을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적 화행을 수행한다. 이것은 단순히 감사의 화행을 수행하기보다는 감정 이입을 통해서 청중도 연사와 마찬가지로 감사한 마음으로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연사가 원하는 방향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연사의 의도로 해석된다.

[4]에서 연사가 청중에게 말하는 두 가지 점, 즉 자신도 청중들과 마찬가지

로 할레 출신이라는 것과 앞으로도 동독인들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청중에게 신뢰감을 준다. 이렇게 연사가 연설에서 청중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을 연사 스스로 먼저 실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청중도 연사를 믿고 따라 주기를 요구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4]는 [5]와 함께 실천을 요청하는 결언부에 해당된다. 이 문장에서 'vergessen'의 목적어는 'woher'와 'welche'가 이끄는 절로, 두음이 같은 'woher'와 'welch'를 반복 사용새서 강조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 auf sie wir zugehen wie sie auf uns'는 'zugehen'이 생략된 채 서로 상응하는 문장 성분들이 거울에 비쳐진 것처럼 맞서 있다. 이처럼 두 개의 낱말이나 어구 또는 문장 성분이 서로 역으로 교차하면서 배열되어 있는 것을 교호 배열법 Chiasmus, Kreuzstellung이라고 한다.

[5]에서 주문장이 삽입문 'das ist meine feste Überzeugung'으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데, 이것을 파격 구문 Anakoluth이라고 한다. 선행하는 낱말이나 문장과는 별개의 구문으로 주제와는 상관없이 화자가 중간에 자의로 삽입시키는 변칙적 부가문에 의해 단절된 문장 구조를 파격 구문이라고 한다. 주문장 안에서 어순을 바꾸어 부문장을 삽입하거나 부문장 안에 또 다른 부문장을 삽입하여 상관관계 없이 전·후문장과의 맥락을 동격화한다(김윤섭, 1989: 388). 부가문에서는 보통 화자의 입장을 부연하거나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보충된다. 이러한 삽입법은 문장의 문법 구조를 의도적으로 방해해서 긴장감을 유발하고 주목을 끌기 위한 수사적 기법이다.

주문장에 쓰인 'werden'은 연사의 소망 또는 기대감을 표시한다. 이것은 연사가 의도하는 쪽으로 청중이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4]에서 동독인을 가리키는 'die'와 'sie'를 서독인을 가리키는 'wir'와 'uns'와 구별해서 사용한 반면, [5]에서는 'uns'를 서독인과 동독인을 아울러서 지칭하고 있다. 이것은 연설을 듣는 청중을 포함시킴으로써 일체감과 동질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들머리와 마찬가지로 'Ich'로 시작하는 문장을 많이 쓰고 있다. 청중을 호칭하면서 밝히기를 마치고 마무리로 넘어간다는 것을 암시한 후에, [1]과 [2], [3]에서 'Ich'를 연속해서 사용함으로써 긴장감을 유발하고 최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5.2 정치 연설문 예시 텍스트 2

전 독일 연방 대통령 로만 헤르초크 Roman Herzog가 1994년 12월 7일 이스라엘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 5.2.1 정치 연설문 예시 텍스트 2의 들머리

[1]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의회의 초대를 받아 짤막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히브리어를 말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 이스라엘과 모든 지역에서 어수선한 시기에 저를 여기로 인도한 이번 여행은 독일 연방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의 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4] 또한 - 제가 원했던 것인데 - 유럽을 제외하고 외국을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5]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나라에 온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6] 1980년에 이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시민들을 알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7] 제가 이번 방문에서 독일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 새롭고도 각별한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기쁩니다.

[8] 독일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특별한 성격을 띱니다. [9] 나찌의 공포 정치가 시작된 지 60년 이상이 지났지만 독일인들이 유대 민족에게 가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0] 몇 백만명의 희생자와 무서운 인간 경시 행위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11] 야트바스헴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 Lassen Sie mich zu Beginn sagen, daß ich es als eine besondere Ehre betrachte, vom renommierten israelische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ingeladen zu sein und eine kurze Rede halten zu können. [2] Ich bedauere es, der hebräischen Sprache nicht mächtig zu sein, um Ihnen meine Gedanken unmittelbar nahebringen zu können.

[3] Meine Reise, die mich in einer für Israel und die gesamte Region bewegenden Zeit hierher geführt hat, ist der erste Besuch Ihres Landes als Präsiden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4] Es ist auch - und dies ist so gewollt - der erste Besuch, den ich einem Land außerhalb Europas abstatte. [5] Aber es ist nicht mein erster Aufenthalt in Ihrem Land. [6] Bereits 1980 hatte ich Gelegenheit, mich mit Israel und seinen Bürgern vertraut zu machen. [7] Ich freue mich, daß ich mit meinem jetzigen Besuch die Gelegenheit erhalte, die Verbundenheit Deutschlands mit Israel erneut und an hervorgehobener Stelle

zum Ausdruck zu bringen.

[8] Die Beziehungen Deuschlands zu Israel tragen für uns einen besonderen Charakter. [9] Auch mehr als 60 Jahre nach Beginn der nationalsozialistischen Schreckensherrschaft ist das unfaßbare Leid, das dem judischen Volk von Deutschen angetan worden ist, nicht vergessen. [10] Die Erinnerung an die Millionen Opfer und an die grausamen und menschenverachtenden Taten ist unauslöschlich. [11] Niemand, der Yad Vashem auch nur einmal besucht hat, kann sich dem entziehen.(Herzog, 1995: 93-95)

[1]은 명령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감사의 의례적인 표현이다. 즉 연사는 이스라엘 의회의 초대를 받아 연설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함으로써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청중의 호감을 사려는 의도가 있다.

[2]에서 연사는 자신의 생각을 청중에게 히브리어로 직접 전달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유감 표명 역시 청중의 호감을 사는 간접적인 요령에 해당한다.

[3]과 [4]에서는 연사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첫 번째 독일 연방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대통령으로서 이번 이스라엘 방문이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케이스라는 사실을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처음이라는 말에 청중은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 더구나 'der erste Besuch'가 [3]과 [4]에서 평행법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청중의 관심이 더 높아진다. 특히 [4]에 삽입된 'und dies ist so gewollt'(그렇게 되길 원했어요)는 이야기 내용에 부연해서 화자의 개인적인 입장을 즉흥적으로 말한다는 인상을 준다.

[5]는 [3]과 [4]와 마찬가지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대조법을 통해서 처음 있는 사실과 처음이 아닌 사실이 서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이스라엘 방문이 처음이 아니라는 연사의 말에 청중은 친밀감을 갖는 동시에 궁금증을 갖는다. 그래서 연사의 다음 말에 청중의 관심이 쏠리게 된다. [6]에서 바로 이 궁금증이 풀리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연사는 [6]으로 과거 사실을 보고하는 서술적 화행을 하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방문했었던 해를 정확하게 숫자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7]에는 독일과 이스라엘의 유대 관계에 대해 새롭고 각별한 자리에서 말하

게 되어 기쁘다는 연사의 심적 상태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청자의 감정 상태를 자극해서 호감을 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11]에서는 얼거리와 밝히기에서 이미 말한 내용이 다시 한번 요약되어 언급된다. 즉 주제 반복과 주제 강조의 형태로 요약된다. [8]에서 이스라엘과 독일과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9]와 [10], [11]에서 말하게 될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9]와 [10], [11]에서는 나찌 집권 시절에 독일이 유대인에게 가한 고통과 만행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지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슬픔 또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 세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부정어 또는 부정 의미를 갖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nicht vergessen', 'unauslöschlich', '(niemand) ... entziehen'이 술부의 자격으로 나란히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세 개의 개념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은 특히 광고에서나 선거 유세 슬로건에서 많이 쓰이는 일종의 수사 기법이다. 이 방법은 3이라는 숫자가 마력적인 효과가 있어 청중이 쉽게 기억하도록 한다. 또한 이 세 개념이 점층법 Klimax으로 이어져서 더 큰 수사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개념을 연달아 말하는 수사적 기법을 삼단법 Trias이라고 부른다(Krieger/Hantschel, 1998: 79).

특히 불편했던 혹은 치욕스러운 역사의 빌미를 제공했던 당사국의 국가 수반이 그 상대 국가를 방문해서 연설할 때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자신이 앞으로 말할 내용에 설득력을 높히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머리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전초 단계이다. 이렇게 해서 연사는 연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 5.2.2 정치 연설문 예시 텍스트 2의 마무리

[1] 여기에서 서술한 독일-이스라엘 관계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을 떠난 후에 끔찍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의 가교를 놓는 데 지식을 쏟아 부은 분들의 기여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 이스라엘에서 독일-이스라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였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3] 저는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죄로 얼룩진 과거로부터 우호적인 독일-이

스라엘 관계의 낙관적인 현재로의 가교를 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4] 》정상적인 관계《라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의 본래 의미에서 과거의 비정상적인 사건과 그로 인한 생겨난 독일인과 유대인 관계의 부담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리고 단순히 미사여구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독일-이스라엘 관계가 특별한 성격을 띤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우리 즉, 독일인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역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특별한 방법으로 서로 협력하고, 신뢰와 우의와 이해를 보여주는 모범이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1] Die hier skizzierte Entwicklung der deutsch-israelischen Beziehungen wäre nicht möglich gewesen ohne den Beitrag derjenigen, die in Deutschland geboren wurden und die, nachdem sie Deutschland verlassen hatten, trotz ihrer schrecklichen Erfahrungen ihre Kenntnis beider Länder dafür einsetzten, Brücken zu bauen. [2] Ihnen und allen, die sich in Israel für die Intensivierung der deutsch-israelischen Beziehungen eingesetzt haben und einsetzen, möchte ich an dieser Stelle meinen besonderen Dank aussprechen.

[3] Ich habe mich bemüht, in der kurzen mir zur Verfügung stehenden Zeit eine Brücke von der belasteten Vergangenheit zur optimistisch stimmenden Gegenwart freundschaftlicher deutsch-israelischer Beziehungen zu schlagen. [4] Ich vermeide bewußt den Begriff 》normale Beziehungen《, weil die im wahrsten Sinn des Wortes abnomalen Geschehnisse der Vergangenheit und die daraus resultierende Belast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utschen und Juden nicht durch Zeitablauf und bloße Deklamationen normalisiert werden können. [5] Unbestritten aber ist der besondere Charakter der deutsch-israelischen Beziehungen, den es aufrechtzuerhalten gilt. [6] Ich bin zuversichtlich, daß wir, Deutsche und Israels, auch in der Zukunft in besonderer Weise zusammenarbeiten und ein Beispiel für Vertrauen, Freundschaft und Verständnis trotz fortbestehender historischer Belastung geben werden.(Herzog, 1995: 105-106)

[1]과 [2]는 연설을 듣는 의원들을 포함해서 독일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던 또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의 감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적 화행은 청중의 호감을 사기 위한 직접적인 요령에 해당된다. 특히 불편했던 두 나라의 역사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가해국인 독일 입장에서 더 새로운 관계를 위해 나아가자

고 요망하기에 앞서 청중의 호감을 사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된다. 또한 'einsetzen'을 3번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이런 연사의 의도를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과 [4]에서는 본론에서 말한 내용의 요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한다. 여기에서 주제는 독일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이고, 과거와 현재의 입장에서 두 나라의 관계가 대비되어 있다. 과거와 관련해서 'belastet'과 'abnormal'을 사용하고, 현재와 관련해서는 'freundlich'와 'optimisch stimmend'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이 대조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대조법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 개념이 대립되어 수사적 효과가 커진다. 또한 표현상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eine Brücke schlagen(다리를 놓는다)'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schlagen은 [1]에서 사용된 'eine Brücke bauen'의 'bauen'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5]와 [6]에서는 더 나은 두 나라의 관계를 지향해 나가자는 연사의 요청이 나타나 있다. [5]에 있는 관계 문장 '...den es aufrechtzuerhalten gilt'에서 'den'은 'der besondere Charakter der deutsch-israelischen Beziehungen'을 받는 것으로, 이 관계문은 'Der besondere Charakter der deutsch-israelischen Beziehungen muß aufrechterhalten werden(독일과 이스라엘 관계의 특별한 성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이런 관계를 당위성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연사가 이스라엘과 독일간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도록 그 실천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서 [6]에서 이스라엘과 독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wir'를 사용하면서 두 나라가 다 함께 협력하고, 서로 신뢰하고 우호적이고 이해하는 모범을 만들게 되리라고 낙관한다는 연사의 개인적인 견해는 사실상 청중이 여기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6. 예시 텍스트 분석 결과의 비교와 평가

앞에서 살펴본 3가지의 예시 텍스트 들머리를 보면, 고대 수사학에서 제시한 원칙인 호감사기, 관심끌기, 이해돕기가 잘 나타나 있다.

우선 호감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정 연설의 예시 텍스트에서는 직접적

인 요령으로 재판관의 의로움과 덕을 내세우고 자신의 장점과 덕을 내세우며,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자기(편)의 비천한 신분을 암시해서 분노와 동정을 일으키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청중이 상대편에게 분노심을 느끼고, 자신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은 결국 청중의 호감을 사는 간접적인 방법이 된다.

정치 연설의 예시 텍스트에서는, 들머리에서 화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감사, 유감, 기쁨 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청중의 호감을 얻기 위한 요령이다. 또한 연사가 자신을 책임감 있고 의로운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청중의 덕과 책임감 등을 칭찬하는 것은 호감을 사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에 비해 자신과 청중과의 공통점이나 연관성을 강조해서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청중의 공명심을 자극하는 것은 호감사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에 속한다. 특히 겐셔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경험들을 청중과 연관시켜서 열거함으로써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관심끌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권위 있는 사람을 내세우거나, 공익과 관련된 변론임을 주장하고, 보편적 가치나 명백하게 보이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과 정치 연설의 경우에 처음인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관심끌기의 요령이다. 말할 내용을 예고하는 것이 법정 연설과 정치 연설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 청중의 관심을 끄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말할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하는 것은 이해 돕기의 요령에 속하는데, 이것 역시 두 가지 연설 모두에 나타나 있다. 이때 본론 내용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해 줄 정도로 아주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요령이 꼭 한 가지의 목적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복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신과 청중의 경험 중에서 공통점을 부각시키면서 말하는 것은 청중에게 친밀감을 주고, 공감대를 만들어 결국 호감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자신의 경험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면 사례를 통해서 청중의 이해를 더 쉽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마무리를 살펴보자. 고대 수사학 교본에는 마무리의 원칙으로 분노, 동정, 요약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결국 청중의 호감사기나 이해돕기와 관련되어 있

다. 상대방에게 분노심을 느끼게 하고 자신에게 동정심을 갖게 하는 것은 결국 간접적으로 청중의 호감을 사는 것과 통한다. 그리고 말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점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은 청중의 기억을 상기시켜서 이해를 돕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수사 교본에서 마무리의 원칙으로 설정된 동정과 분노와 요약은 오히려 청중의 호감을 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요령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요약은 법정 연설과 정치 연설 모두에서 나오는 반면에, 호감사기의 요령으로 분노와 동정 등과 같은 격한 감정 자극은 법정 연설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것은 고대 수사학 교본의 이론들이 법정 연설을 모범을 삼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비해 정치 연설에서는 호감사기 위한 방법으로 청중에게 감사하고 신뢰감을 주는 방법이 쓰인다. 이밖에 마무리의 말미에서 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청중의 행동을 유도하려는 연사의 의도가 표출되어 있다. 이러한 결언부는 연사가 약속이나 다짐을 하거나 기대나 희망을 피력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청중에게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하나의 마무리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것을 "실천 요청하기"라고 부르기로 한다.

연설 종류별로 보면, 법정 연설에서는 들머리의 원칙인 관심끌기, 호감사기, 이해돕기가 골고루 나타나는 반면에, 정치 연설에서는 주로 호감사기가 나타난다. 또한 마무리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법정 연설에서는 주로 간접적인 방법인 분노와 동정과 같은 격한 감정 자극이 동원되는데 비해, 정치 연설에서는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거나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마무리의 또 한 가지 원칙인 실천 요청하기에서도, 정치 연설에서는 주로 연사의 소망이나 기대감, 다짐 등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비해, 법정 연설에서는 분노 동정과 같은 격한 감정 자극과 함께 매우 위협적 방법이 사용된다.

## 7. 마무리

연설문은 텍스트 기능이란 면에서 보면 호소-설득 텍스트에 속하고,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들머리 - 얼거리 - 밝히기 - 마무리의 순서로 배열된 일정한 틀을 갖춘 텍스트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들머리와 마무리는 연설 텍

스트에서 앞과 뒤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알리기나 설득하기에 중점을 두는 얼거리나 밝히기와는 달리 주로 감정에 호소하는 특징이 있다. 예시 텍스트를 통해서 살펴 본 것을 종합해 보면, 들머리의 원칙으로는 호감사기, 관심끌기, 이해돕기를 설정하고, 마무리의 원칙으로는 호감사기, 이해돕기, 실천 요청하기를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호감사기와 이해돕기는 들머리와 마무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비해서, 관심끌기는 들머리에서만, 실천 요청하기는 마무리에서만 나온다. 이러한 특징은 들머리와 마무리의 목적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이 4가지 원칙들 중 특히 호감사기는 감정 자극에 의한 호소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연설문의 들머리와 마무리를 통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원칙이다. 연설은 청중을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연설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독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청중의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자 지향적인 텍스트 유형이다. 따라서 호감사기는 이해를 돕고, 관심을 끌며, 실천을 요청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특히 법정 연설에서는 청중을 칭찬하거나 청중의 공명심을 자극하거나, 상대방에게 질투, 시기, 분노, 적대감 등의 감정이 일어나게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동정을 사는 방법이 쓰인다. 이처럼 법정 연설에는 격렬한 감정 Pathos을 많이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특히 마무리에서 더 잘 나타난다. 이에 비해서 정치 연설에서는 청중의 격렬한 감정을 조장하기보다는 연사의 도덕성, 책임감, 정의로움, 감사, 유감 등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연사의 부드러운 감정 Ethos이 강조된다. 이것은 법정 연설이 개인의 이해 관계와 맞물려 있어서 청중인 재판관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하는 반면에, 정치 연설에서는 선동 연설을 제외하고는 정치 조직이나 일반 대중처럼 집단을 청중으로 해서 그들의 행복과 관련해서 심사숙고하도록 요구하는 특성을 비교해 보면 잘 이해될 수 있다.

관심끌기는 처음인 사실을 말하거나 말할 내용을 예고하거나, 공익을 위한 변론이라고 말하거나 권위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말할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실천 요청하기는 연사의 약속이나 다짐 또는 소망이나 기대감 피력 등과 같이 우회적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청중에게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형식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시 텍스트를 통해서 반어법, 수사 의문문, 대조법, 반복법, 점층법, 평행법,

교정법, 은유법, 환칭법, 호격, 변죽 울리기, 삽입법, 과장법, 열거법, 교호 배열법, 생략법 등과 같은 수사 기법의 사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들머리나 마무리의 원칙을 뒷받침해 주는 수사 기법들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사례를 들거나 은유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청중들의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고, 점층법과 대조법은 긴장감을 유발해서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반복법이나 교정법, 교차 배열법은 강조의 효과가 있고, 호격이나 수사적 의문문, 삽입문 등은 청자가 연설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의사소통적 효과를 준다.

## 참고문헌

김윤섭(1989): 독어 문체론, 법문사.
김현(편)(1985):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박우수(1995):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와 실천적 삶, 인문과학 제13집.
백미숙(역)(2000): 스피치 핸드북(Krieger, Paul/Hantschel, Hans-Jürgen (1998): Handbuch Rhetorik), 일빛.
양태종(1991): 고대 수사학 연구, 박사 논문, 한국외국어 대학교.
양태종(1993a): 들머리 만들기, 독일학 연구집 제9호, 동아대학교.
양태종(1993b): 들머리의 종류와 그 사용 환경, 언어와 언어 교육 제8집, 동아대학교.
양태종(1997): 마무리에 대하여, 독일학 연구 제13집, 동아대학교.
양태종(2000): 수사학 이야기, 동아대학교 출판부.
이성만(역)(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한국 문화사.
임태섭((1997):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연암사.
최선경(1999): 연설문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석사 논문, 서울대학교.
홍재성/권오룡(역)(1994): 언어와 이데올로기(Reboul, Olivier(1980): Langage et ideolgie), 역사비평사
Brinker, Klaus(1997): Linguistische Textanalyse, Berlin: Erich Schmidt
Elertsen/Hartig(1982): Moderne Rhetorik, Heidelberg: Sauer.
Genscher, Hans-Dietrich(1991): Unterwegs zur Einheit, Berlin: Siedler.
Herzog, Roman(1995): Wahrheit und Klarheit, Hamburg: Hoffmann und Campe.

Krieger, Paul/Hantschel, Hans-Jürgen(1998): Handbuch Rhetorik, Niedernhausen: Falken.
Lemmermann, Heinz(2000): Praxisbuch Rhetorik, München: mvg.
Martin, Josef(1974): Antike Rhetorik, München: C. H. Beck.
Plett, Heinrich F.(1985): Einführung in die rhetorische Textanayse, Hamburg: Helmut Buske.
Wieland, Christoph Martin(1989): Geschichte der Abderiten, Stuttgart: Philipp Reclam Jun.

## Zusammenfassung

### Analyse der Struktur von Einleitung und Schluss im Redetext

Baek, Mi Suk(Sungkyunkwan Uni.)

Aus kommunikativer Hinsicht wird die Textsorte 'Rede' als appellierende-persuative Textsorte charakterisiert, die eine bestimmte Aufbaustrukutur hat. Das klassische Schema der Rede setzt sich aus Einleitung, Erzählung, Beweis und Schluß zusammen. Erzählung und Beweis, die sich in der Mitte des ganzen Textes befinden, sind verbunden mit einem Appell an die Vernunft und haben ein intellektuelles Wirkziel. Im Gegensatz dazu beabsichtigen Einleitung und Schluß jeweils als erster und letzter Redeteil das Erzeugen einer sanften oder heftigen Emotion.

In dieser Arbeit stellt sich es in drei Textanalysen heraus, daß die Einleitung darauf abzielt, die Zuhörer wohlwollend, aufmerksam und gelehrig zu machen, und daß der Schluß darauf abzielt, die Zuhörer wohlwollend, gelehrig zu machen und zum Handeln zu ermuntern.

Das Wohlwollen wird dadurch gewonnen, wenn der Redner die Zuhörer lobt oder ihren Ehrgeiz anregt, wenn der Redner den Zuhörern Haß, Zorn, Mißgunst gegen den Gegner einflößt, indem er über die schlechten Eigenschaften seines Gegners spricht, oder wenn der Redner den Zuhörern Liebe, Gunst und Mitleid für sich selbst einflößt, indem er Dank, Freude und Bedauern usw. ausspricht oder den Zuhörern seine eingenen Tugenden, seinen Gerechtigkeitssinn, Würde, Verdienste, Wohlhaben und Vertrauen zeigt.

Die Aufmerksamkeit wird geweckt, wenn der Redner angesehene oder mächtige Personen in den Vordergrund stellt, wenn er zeigt, daß er für das allgemeine Wohl

plädiert, wenn er ein Wertargument oder ein plausibles Argument benutzt, wenn er etwas Neues bespricht, oder wenn er letztendlich ankündigt, zur Sache zu kommen.

Der Wille, sich belehren zu lassen, wird geweckt, wenn das vorher Gesagte anhand der Hauptpunkten und in aller Kürze aufgezählt wird, um es den Zuhörern eine Erinnerung zurückzurufen.

Ermuterung zum Handeln wird geschaffen, wenn der Redner seine Wünsche und Erwartungen usw. ausspricht.

Außerdem sind rhetorische Mittel wie Ironie, rhetorische Fragen, Antithese, Wiederholung, Parallelismus, Klimax, Correctio, Metapher, Vokativ, Anspielung, Einschub, Hyperbel, Aufzählung, Chiasmus, Ellipse usw. für das Gefüge der Rede von Bedeutung. Sie dienen vor allem dem Zweck, den Zuhörern den Redeinhalt anschaulich, spannend und eindringlich darzubieten und damit die Wirkung der Aussage zu steigern.

**[검색어]** 설득, 배열, 수사 기법
Überzeugung, dispositio, rhetorische Mitteln